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기사료 개발 정책지원 필요

단미사료협회, 제8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유동준)는 지난 7월 12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센트로 호텔에서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이용·개발'이란 주제로 제8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축산관련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상수 과장이 제1주제인 '한미FTA 축산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데 이어 강원대 오상집 교수는 제2주제 '유기축산을 위한 사료의 개발 및 활용'이란 주제를 통해 유기축산의 미래에 대해 전망했다.

오상집 교수는 "유기축산의 생산 수준은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축산업을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척도"라며 "유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위

한 정책적 지원과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호주 울텍社의 Kocher 박사는 '옥수수 - 연료, 식품 혹은 사료인가? 이것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옥수수 주정박(DDGS)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봤다. Kocher 박사는 "바이오에너지의 수요 증가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부산물인 옥수수 주정박(DDGS)가 사료용으로서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효과적인 DDGS의 사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학원 조사료자원과 서성 박사는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 및 이용'이란 주제를 통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과 이용은 조사료의 자급 뿐만 아니라 외화절약과 국토의 공익적 기능 유지란 측면에서도 시급히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양동**